

이보다 더 투명할 수는 없다 신비로운 겨울 속 세상, 중국 구채구

중국 구채구의 물 풍경은 예로부터 아름답고 깨끗하기로 이름 높다. '중국에서 황산을 보고 나면 다른 산을 보지 않고, 구채구의 물을 보고 나면 다른 물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정도다. 유리알처럼 맑고 거울처럼 투명한 미경(美景)을 보러 구채구를 찾는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는 이유다.

깊은 물속 바닥까지 흰히 비쳐 보일 만큼 영롱하고 깨끗한 물빛을 자랑하는 중국 구채구(九寨溝). 오죽하면 단순히 '풍경'이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을 뜻하는 '미경(美景)'이라고까지 불렸을까.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중국에서 황산을 보고 나면 다른 산을 보지 않고, 구채구의 물을 보고 나면 다른 물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을까.

중국 서부의 사천성에 자리 잡은 구채구는 총면적의 절반 정도가 원시림이다. 갖가지 봉우리와 골짜기, 호수, 폭포 등이 있으며 희귀동물과 100여 종의 식물도 살고 있다. 이들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풍경은 먼 옛날 전설이나 신화에나 등장할 법한 환상적인 별천지에 다름 아니다.

주로 가을에 구채구를 찾는 이들이 많지만 여름에는 우리나라보다 시원하고 겨울에는 약간 따뜻해 1년 내내 여행이 가능하다. 유리알처럼 맑고 거울처럼 투명한 풍경이 입소문을 타면서 구채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직항으로 가는 항공편이 없으므로 북경이나 성도를 거쳐야 한다.

구채구 풍경의 정수, 일측량

구채구에 있는 여러 폭포 가운데 하나인 낙일량 폭포에서 원시림까지 약 18km에 이르는 지역이 '일측량'이다. 바닥에 깔려 있는 돌의 개수까지 셀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맑고 어느 계절에 찾아가도 더없이 아름다운 모습만 내보여 구채구에서도 으뜸가는 풍경으로 꼽힌다. 이미 이름난 관광지인

진주탄 폭포, 오화해, 전축해, 팬더해, 매밭톱동굴 등이 들어서 있으며 중국이 낳은 세계적 배우 이연걸이 등장한 영화 '영웅'을 비롯해 수많은 걸작의 배경으로 소개됐던 화려한 전력을 갖고 있다.

어여쁜 이름을 가진 '진주탄 폭포'는 험준한 절벽으로부터 바닥을 향해 폭포수가 거세게 떨어질 때 생겨나는 무수



호수의 빛깔이 담황색, 검푸른 색, 짙은 남색 등 5가지 색으로 보이는 '오화해'는 햇빛을 받아 알록달록 반짝이는 수면 풍경이 무척 신비롭다.





1



2



3

1. 햇살이 화화해의 표면에 닿는 순간 새파란 수면에 붉은 불이 옮겨붙은 듯한 착각에 빠져든다.
2. 구채구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환경보호가 매우 엄격하다. 또 고도가 해발 3천~4천m나 되는 높은 곳이기 때문에 고산병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구채구는 총면적의 절반 정도가 원시림이며 맑은 물과 폭포, 기이한 지형으로 인해 전설과 신화에 등장할 법한 환상적인 별천지의 느낌이 강하다.

한 물방울이 하얗고 둥근 진주 알갱이를 떠올리게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가 하면 ‘오화해’는 호수의 빛깔이 담황색, 검푸른 색, 짙은 남색 등의 5가지 색으로 보인다는 뜻을 담고 있다. 태양이 환하게 비추는 날이면 햇빛을 받아 알록달록 반짝이는 수면 풍경이 몹시도 신비롭다.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드는 절경 덕분에 ‘구채정화(九寨精華)’ 또는 ‘구채일절(九寨一絶)’이라 불리기도 한다. 하나같이 ‘빠어나게 아름답다’는 뜻을 담은 말들이다.

붉은 햇빛과 푸른 수면의 향연, 화화해

이른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희뿌연 안개 사이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햇살이 드디어 화화해의 표면에 닿기 시작할 때면 새파란 수면에 마치 붉은 불이라도 옮겨붙은 듯한 착각에 빠져든다. 일렁이는 수면을 따라 이리로 저리로 미세하게 움직이는 붉은 빛과 파란 수면의 향연. 때로는 호수 위에 붉은 꽃을 뿌려 놓은 듯, 때로는 휘황찬란한

보석을 뿌려 놓은 듯 환상적이다.

호수 주변으로 야생화가 만발할 무렵에는 새벽의 이슬 맺힌 꽃들에 붉은 태양 빛이 비치고 이 꽃들이 다시 호수에 고스란히 비치면서 동화 속 풍경처럼 예쁘고 신비스러운 절경을 자아낸다. 자칫해서 큰소리로 감탄사를 내뱉기라도 하면 물속 세상이 사르르 날아가 버릴까 조심스레 숨을 멈추고 봐야 할 듯.

물 위에 비친 또 하나의 세상, 수정구

구채구의 풍경은 하나같이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그중에서도 물이 유달리 맑아 산이면 산, 나무면 나무, 주변의 풍경을 거울처럼 그대로 비춰 놓은 곳이 수정구다. 물속에 비친 산세가 너무나도 선명해 마치 또 하나의 세상처럼 보인다.

주변에 위치한 수정폭포는 크고 작은 폭포가 여러 개 모인 폭포로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폭포의 물이 한데 섞여 급류를 형성하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낙일랑 폭포는 폭



4

- 4. 우리나라에서 구채구까지는 직항편이 없으며 북경이나 성도를 거쳐야 한다.
- 5. 주로 가을에 구채구를 찾는 이들이 많지만 여름에는 우리나라보다 시원하고 겨울에는 약간 따뜻해 1년 내내 여행이 가능하다.




5

이 무려 300m에 달해 중국에서 가장 넓은 폭포로 유명하다. 역시 여러 폭포가 병풍처럼 늘어서 있어 더욱 거대하게 보인다.

과거로 돌아가다, 금리거리

금리거리는 중국 삼국시대의 길거리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곳이다. 구불구불한 골목은 물론이고 거리 전체에 전통 노점과 상점이 즐비해 순식간에 과거로 시간 이동을 한 듯하다. 노점들은 대부분 전통 문양이 들어간 기념품이나 다양한 수공예품을 취급하며 맛있는 음식도 판다. 하지만 현대적 분위기의 카페와 음식점도 많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로 북적인다. 저녁이 되면 중국을 상징하는 홍등이 거리 한가득 불을 밝혀 흥취가 절로 무르익는다.

1만 년에 이르는 중국의 기나긴 역사에서 당당하게 한 세대를 풍미한 유비, 관우, 장비와 더불어 오늘날까지도 자주 회자되는 전설적인 전략가 제갈공명을 모신 사당 ‘무후사’

도 이곳에 있다. 경내에는 유비전과 제갈량전을 비롯해 관우와 장비를 포함한 문·무관의 동상과 ‘제갈고’라는 이름의 북 등 문화재가 다수 보관돼 있다. 

서지훈 기자 ibuddy@hanmail.net

사진제공_ [하나투어\(www.hanatour.com\)](http://www.hanatour.com)



여행 시 참고사항

구채구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만큼 환경보호가 매우 엄격하다. 화장실과 쓰레기통이 많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물고기에게 음식을 함부로 줘도 안 된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생활관습과 신앙을 존중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구채구는 고도가 해발 3천~4천m나 되는 높은 곳이기 때문에 심한 운동을 피하는 등 고산병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햇빛이 강한 데다 수면에 강하게 반사되므로 자외선 차단제 등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게 좋다. 